

# 섬이 전하는 노래가 황홀한 비트 되려면

사단법인 마로·김씨아이씨  
전통예술과 젊은 그룹 만남  
제주 자연에서 얻은 감성  
밴드 음악·굿소리 등에 담아



판굿을 공연하고 있는 사단법인 마로. 이번에는 밴드 김씨아이씨와 만나 '섬이 전하는 노래'를 펼친다.

전통음악과 젊은 밴드의 감성이 주말 공연장에서 만난다. 2020설문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으로 이달 22일 오후 7시부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사단법인 마로의 신작 '섬이 전하는 노래 엑스 테틱 비트'(연출 송해인)다.

'섬이 전하는 노래...'는 '천혜의 섬'으로 불려온 제주에서 얻은 느낌을 전통공연예술단 마로와 프로젝트 그룹 김씨아이씨(kimcic)가 소리로 엮어 미디어아트를 배경으로 '사운드인터랙티브 콘서트'로 풀어내는 무대다. 김씨아이씨밴드 김도현의 작

사·작곡, 마로의 제주굿 소리와 강렬한 리듬, 여기에 애절한 선율이 더해진다. 세대를 아우르며 음악적 공감대를 꾀하고 공존의 메시지를 나눌

예정이다. 이번 공연의 영문 제목을 직역하면 '황홀한 비트(Ecstatic Beat)'다. 개발 바람에 이리저리 치이는 이

섬이 전하는 노래가 황홀한 비트가 될 수 있을까. 기획을 맡은 양호성씨는 "대자연의 거대함과 포근함은 늘 큰 영감과 치유를 준다"면서 "그 감성들을 담아낼 새로운 콘서트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마로는 2000년 제주 토박이 사물놀이패로 출발해 지금은 전국 각지 예술가들이 모여있는 단체다. 전통가무악을 기반으로 제주 신화, 무속, 문화에서 자극을 받아 만든 창작공연 등을 선보여왔다. 김씨아이씨는 드럼 오형석, 기타 안지훈, 보컬 김도현이 중심이 된 프로젝트 그룹이다. '산행', '하늘에 부르는 노래'를 발표했고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관람료 무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50명까지 입장 가능(선착순 전화 예약)하다. 문의 722-0129.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17일 저녁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이시돌 삼위일체 대성당에서 열린 강우일 제주교구장 퇴임 감사 미사에서 평신도 대표가 교구민들의 마음을 모은 영적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 "제주는 평화 위해 일하도록 이끈 땅"

강우일 천주교제주교구장  
그제 퇴임 감사 미사 열려  
제주4·3과 강정마을 고통  
마지막 강론서 평화 역설  
신자 등 감사의 말 전해

여다보면서 "분단은 단순히 38선의 지역적 경계가 아니라 피를 나눈 같은 겨레, 같은 동네 사람들이 어느날 갑자기 절친지원수처럼 적대하도록 타율에 의해 강요된 사회적 분단임을 새삼 깨달았다"는 강 주교는 그 깊은 슬픔이 오늘날 강정으로 이어진 점을 언급했다.

강 주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과거 섬사람들에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러놓고 또 군대를 보내서 강정마을 주민들을 두 쪽으로 갈라놓고 말았다"며 "그후 저는 우리가 국가 없이 살 수 없지만, 국민을 섬기기보다 괴롭히는 국가를 감시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성토를 해야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에 와서 국가가 저질러온 수많은 불의와 폭력을 속죄하기 위해 평화를 위해 일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강 주교는 "하느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서로를 같은 하느님 자녀로 존중하고 아끼는 한 가족이 되도록 평화를 위해 일하고 싶었다"며 함께 하자고 말했다.

미사가 끝난 뒤 '감사의 시간'이 진행됐다. 신자들은 기도 예물과 꽃다발을 전달했고 제주교구 사제단은 '사랑해'를 부르며 강 주교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사제단 대표인 양영수 신부, 고용삼 평신도사도 직협의회장, 부교구장인 문창우 주교의 감사의 말도 있었다. 고용삼 평신도사도직협의회장은 "주교님은 천주교 신자들에게 너무도 크신 어른이셨다. 교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가톨릭 신자로서 행복했고 당당했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2002년 제주교구장으로 착좌한 강 주교는 "제주에 같은 한국 땅이지만 너무 많이 달랐다. 4·3 때 제주도민이 얼마나 많이 죽음을 당하고,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고, 그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70여 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제주도민들 빚기에 너무 죄송하고 가슴이 따가웠다"고 했다. 4·3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를 다시 들

고 있다. 제26회 제주신인문학상은 당선작을 내지 못했다. 시 부문은 '꽃봉우리' 등 5편을 응모한 김승현씨, 동화 부문은 '물마중' 등 3편을 출품한 윤복희씨가 각각 가작에 뽑혔다. 동시와 수필 부문은 수상작을 배출하지 못했다. 시상식은 11월 30일 오후 6시 팔레스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의 748-3125. 전선희기자

## 제20회 제주문학상에 김순이 시인

수상작 시집 '제주야행'  
신인상은 시·동화 가작

은 내용으로 제20회 제주문학상 수상자와 제26회 제주신인문학상 수상자를 결정했다.

김순이 시인은 시집 '제주야행'으로 제주문학상을 받는다. 김 시인은 1988년 문학과 비평으로 등단해 시집 '제주바다는 소리쳐올 때 아름답



김순이 시인

다', 시선집 '그리운 꽃 한송이', '제주야행'을 냈다. '제주신화', '그리운 제주풍경 100선' 등도 출간했다. 시인은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연구원으로 근무했고 현재 문화재전문위원으로 활동

하고 있다.

제26회 제주신인문학상은 당선작을 내지 못했다. 시 부문은 '꽃봉우리' 등 5편을 응모한 김승현씨, 동화 부문은 '물마중' 등 3편을 출품한 윤복희씨가 각각 가작에 뽑혔다. 동시와 수필 부문은 수상작을 배출하지 못했다. 시상식은 11월 30일 오후 6시 팔레스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의 748-3125. 전선희기자

## 문화가 쏘다

### '탐라신화' 주제 학술대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원장 전영준)은 제주학연구센터 후원으로 이달 20-21일 한국무속학회와 함께 '탐라신화의 동아시아적 위상과 과제'를 주제로 제주대 인문대학 2호관 현석재에서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탐라신화의 동아시아의 중심부·중간부·주변부적 성격',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에 답함-중국 소수민족 신화로 제주 신화 읽기', '본풀이의 의례적 확장-동북신 곳을 실마리 삼아', '삼성신화의 동아시아적 위상과 과제', '문헌본풀이의 집과 마을 철학', '제주도 무녀 삼승할망 고찰' 등에 대한 발표가 마련된다. 탐라문화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아름다운 제주 위한 노래

살롱 드 뮤직이 주최하는 '아름다운 제주를 위한 노래'가 이달 22일 오후 3시30분과 6시 돌문화공원 오백장군 갤러리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날 공연은 엘가, 플랑크, 몬티, 드뷔시, 피아졸라가 작곡한 클래식 음악과 제주 소재 창작곡으로 꾸민다. 창작곡으로는 김수하 곡, 김나형 작사 '유 엔 아이', 김나형 작사·작곡 '손심영'과 김수하가 작곡한 '해녀의 노래', '노을, 제주', '바람의 기억'이 준비됐다. 일부 작품은 직접 제작한 영상을 배경으로 연주된다. 회당 48명에 한해 입장 가능하다. 무료 공연이나 돌문화공원 입장료는 내야 한다. 예약 문의 010-6488-1023.

### 도채비 정기공연 '짬뽕'

5·18광주민중항쟁을 그린 연극 '짬뽕'(윤정환 작)이 제주에서 공연된다. 극단 문화놀이터 도채비는 2020년 정기공연으로 이달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토·일요일 오후 3시와 6시 도채비 소극장에서 '짬뽕'을 무대에 올린다.

2004년 초연된 이 작품은 소박한 꿈을 가진 이들이 엄청난 역사의 현장에 휘말리면서 꿈을 지켜내기 위해 겪는 사건을 그린 블랙코미디다. 제주에선 양기철 연출로 김국선, 변종수, 김미경, 진두선, 차지혜, 진상섭, 조민주, 고정민, 김수홍, 송승현, 한승훈, 김지은이 출연한다. 관람료 2만원. 문의 751-5557.

### 만정제춘향가 온라인 공연

사단법인 한국판소리보존회 제주지부(지부장 권미숙)가 이달 22일 오후 2시 한라아트홀 소극장에서 펼쳐지는 '만정제춘향가' 두 번째 발표회를 온라인으로 선보인다.

'춘향이 불러 더 존 날'이란 제목을 단 이 공연엔 소리꾼 권미숙, 고수 신규식, 소리꾼 조무제 등이 출연한다. '춘향이 비 맞은 재비같이', '신연맞이', '십장가', '옥중가', 판소리 창극 '사랑가' 등을 들을 수 있다. 제주민도와 남도민으로 불려진다. 공연은 SNS(facebook.com/kweon.misook)로 생중계된다. 이달 26일부터 유튜브로 만날 수 있다. 문의 010-3033-8425.

신사정장 전문브랜드 | **The MAN** | **옷을 구입**

강남한복 | 판매·대여 전문점 |

# 미천데이 행사

**강남한복 대여 80,000원~**
**더맨신사정장 대여 39,000원~**

더맨신사정장 판매	159,000원~	기능성 바지	15,000원~	기능성 T	10,000원~
Y셔츠	15,000원~	패딩 점퍼	29,000원~	골프T	15,000원~

**빅사이즈 정장, 콤비, 코트, 바지, 특별세일**

제주시 오남로 20 (종합운동장과 보건소사이) 문의 : 064 752.8899